유가 10%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 0.71% 뛰어 부담 커진다

산업연구원, 美-이란 전쟁 영향 보고서

중동 긴장에 유가·물류 불안 확대
직접 수출 충격은 제한적 전망
석유제품·화학업종 비용 상승폭 커
봉쇄 땐 운송비·납기 차질 우려
수입선 다변화·물류 대응 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모습. /뉴시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동 수출이 최근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과 납기 지연 등으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국제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배럴당 약 72달러에서 약 103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40%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출 측면에서는 직접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해상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간접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공급망 교란 등이 나타나면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자동차·기계·플랜트·소비재 등 한국의 대중동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물류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조업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석유제품 산업의 생산비 증가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1.59%, 고무·플라스틱 제품 0.4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운송장비 0.20%, 기타 제조제품 0.19%, 음식료품 0.15%, 자동차 0.14%, 일반기계 0.12%, 철강 0.08%, 반도체 0.05% 등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 구조를 고려해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해상 운송 차질에 대비한 물류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 실장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최고유가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물가를 잡는 단기 안정화 정책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물가도 상승하며 경기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정부가 시장 안정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호르무즈發 요소값 불안… 비료·먹거리 물가 긴장

중동산 농업용 요소 비중 40% 달해
정부 "민간 재고 6개월치 확보" 진화
가축전염병 확산도 물가 불안 요인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요소인데,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농업용 요소의 5분의 2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소는 질소비료 제조에 사용된다. 비료는 벼, 채소, 과수 등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다. 상승한 요소 값은 비료 값 인상을 부르고, 농가는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농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농업용 요소 35만 톤(t) 중 38%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의 최대 요소 수입 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11일 인천 강화의 한 감자밭에 화학비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국내 재고는 확보돼 있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비료 선물시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거래되는 요소 가격은 최근 전쟁 발생 이후 일주일 새 40% 넘게 뛰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시 원료 가격 상승이 비료 생산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 등 민간이 약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비료 원료 가운데 약 38%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현재 재고는 8월까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제2의 비료대란' 가능성을 거론하고 비료 원료의 비축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비료 원료 가격의 급등이 농업 생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중국이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요소 대란'이 발생했고 물류 부문 등이 타격을 받았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질소 비료 원료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세계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고 국내에서도 비룟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더해 가축전염병의 확산도 물가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이른바 3대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동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살처분이 크게 늘면서 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유가 현상 이어지면 1500원선 안착 가능성

>> 1면 '1500원 환율 뉴노멀… '서 계속

◆ 정부, 환율 개입 지속…영향은 제한적

환율 상승을 경계한 정부와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환율과 금리가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돼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가·환율 등에 대한 범부처 대응안을 주문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1500원 안착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경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 위험선호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위험통화인 원화의 약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중동사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가 유가를 급등시키고 달러화 강세폭을 키우고 있다"면서 "중동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현상이 이어진다면 환율이 1500원선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30년 만의 최고가격제 시행… 정유업계, 손실·재무 부담 가중

국내 기름값 상승세 일단 진정
국제 석유제품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
손실보전 입증·분기별 정산에 부담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급등하던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36.5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동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지난 13일 기준 보통휘발유가 배럴당 136.44달러로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전(90.31달러)과 비교해 51.1% 상승했다. 같은 날 경유 가격도 배럴당 192.48달러로 67.2% 오른 상태다.

일반적으로 MOPS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판매 가격도 함께 오르지만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정유사들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 가격과 국내 공급 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유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 보전과 정유사의 입증 책임,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을 신청하면 회계·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다만 정유업계에서는 실제 정산 과정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회계법인 심사를 거치며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정산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인해 보전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일정 기간 손실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